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볼 때, 음운 변동 ㉠, ㉡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1)

< 보 기 >

다음은 '맨입'과 '국민'을 발음할 때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맨입'은 음운 변동 ㉠이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고, '국민'은 음운 변동 ㉡가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된다.

'맨입'

[맨닙]

'국민'

[궁민]

- ① 막일 ② 담요 ③ 낙엽 ④ 곡물 ⑤ 강약

12. 제시된 탐구 과정을 고려할 때, [A], [B]에 들어갈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탐구 주제	밑줄 친 말을 문장 성분과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 이것은 ㉠ 새로운 글이다. • 이것은 ㉡ 새 글이다. • 그는 ㉢ 빠르게 달린다. • 그는 ㉣ 빨리 달린다.	
탐구 관련 지식	•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용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함.	• 형용사는 관형사나 부사와 달리 활용을 함. • 관형사는 명사를, 부사는 동사를 수식함.
탐구 결과	문장 성분에 따라 [A]로 분류할 수 있다.	품사에 따라 [B]로 분류할 수 있다.

[A]

[B]

- | | |
|---------------|--------------|
| ① ㉠, ㉡ / ㉢, ㉣ | ①, ㉡ / ㉢ / ㉣ |
| ②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 소리가 'ㄹ'인 경우에는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잘못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녹슬- + -ㄴ → 녹슨(○)
 → 녹슬은(×)

- ① 언니는 시들은 꽃다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②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은 형은 누나에게 사과했다.
 ③ 낮설은 땅에 정착한 주민들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④ 나는 차창 밖으로 내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은 구름이 꽤 아름다웠다.

14.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의 왼편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습니다.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점이 한 개면 높은 소리, 점이 두 개면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가령 '말·쓰·미'는 다음과 같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말·쓰·미 →

자, 그럼 다음의 밑줄 친 ㉠은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불·휘기·폰남·근브르·매 ㉠ 아·니·뫼·씩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중에서

- | | |
|---|---|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 2017년 3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5. <보기>는 ‘뽀’에 대한 남북한의 사전 풀이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

< 보 기 >

(가) 표준국어대사전(남한)

뽀⁰¹ 「의존 명사」

(1)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소문으로만 들었을 뽀이네.

(2) (‘-다 뽀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 시간만 보냈다 뽀이지 한 일은 없다.

뽀⁰² 「조사」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나) 조선말대사전(북한)

뽀 「불완전명사*」

(1) (체언아래에 쓰이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는 뜻.
 | 소식을 듣고 기뻐한것은 나뽀이 아니었다.

(2) (용언아래에 쓰이어)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
 |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삼켰을뽀이었다.

* 불완전명사: 북한에서 ‘의존 명사’를 가리키는 말.

- ① (가)의 ‘뽀⁰¹’은 (나)의 ‘뽀’와 달리 앞에 오는 말과 띄어서 쓰이는군.
- ② (가)의 ‘뽀⁰¹’과 (나)의 ‘뽀’은 모두 두 가지의 뜻을 가진 단어이군.
- ③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에서 ‘뽀’은 (가)의 ‘뽀⁰²’, (나)의 ‘뽀’ (1)의 뜻에 해당하는군.
- ④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체언 뒤의 ‘뽀’과 용언 뒤의 ‘뽀’을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뽀’을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 않고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2) 2017년 3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 단위이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뜻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1) 사과를 먹었다.

(1)은 ‘사과, 를, 먹었다’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사과’의 경우, 단어를 나누면 ‘사’와 ‘과’로 쪼개어지는데 각각은 뜻이 없다. 따라서 ‘사과’는 뜻을 가진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먹었다’의 경우, ‘먹-’의 자리에 ‘끼-’을 넣는다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먹었다’라는 단어가 ‘음식 등을 입을 거쳐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먹-’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었-’ 자리에 ‘-는-’을 넣으면 먹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현재’로 달라지므로 ‘-었-’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다’ 자리에 ‘-고’를 넣으면 ‘먹었고’가 되어서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짐을 나타내므로 ‘-다’가 ‘문장 종결’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단어 ‘먹었다’는 ‘먹-’, ‘-었-’, ‘-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었-’이나 ‘-다’는 ‘먹-’과 달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형식 형태소에는 ‘-었-’, ‘-다’와 같은 어미뿐만 아니라 ‘를’과 같은 조사, 어근의 앞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단어의 성질을 바꾸는 접사가 있다. 반면에 ‘사과’, ‘먹-’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1)의 형태소 중 ‘사과’는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쓰일 수 있지만, ‘를’은 ‘사과’에 붙어야 쓰일 수 있고, ‘먹-’, ‘-었-’, ‘-다’는 서로 기대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사과’처럼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를’, ‘먹-’, ‘-었-’, ‘-다’처럼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1)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사과 / 를 / 먹 / 었 / 다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소를 더 작게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
- ② 의존 형태소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 ④ 형태소 중에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도 있다.
- ⑤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는 모두 자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3)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가 풀밭을 맨발로 댄다.

- ① ‘풀밭’은 ‘풀’ 대신 ‘꽃’을 넣거나 ‘밭’ 대신 ‘빛’을 넣으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풀’과 ‘밭’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맨발’의 ‘맨-’은 ‘발’과 결합하여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③ ‘댄다’의 ‘-ㄴ-’ 대신에 ‘-었-’을 넣으면 동작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므로 ‘-ㄴ-’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 ④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4개이다.
- ⑤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5개이다.

13.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과열음	ㅂ, ㅍ	ㄷ, ㅌ		ㄱ, ㅋ
과찰음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보기 2> —————

㉠ 국민→[궁민] ㉡ 물난리→[물랄리] ㉢ 굳이→[구지]

- ① ㉠은 첫음절 끝의 과열음이 뒤의 자음과 결합하여 유음으로 바뀌었다.
- ② ㉡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③ ㉢은 여린입천장소리가 뒤의 자음을 닮아 센입천장소리로 바뀌었다.
- ④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방법이 변화했다.
- ⑤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위치가 변화했다.

14.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ㄱ. 철수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ㄴ.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 ② ㄴ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므로 주성분입니다.
- ③ ㄱ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 ④ ㄱ과 ㄴ에는 주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 ⑤ ㄱ과 ㄴ에는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습니다.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4)

————— <보 기> —————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결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가 1, 3인칭일 경우,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는 ‘-고’, ‘-고’와 같은 ‘오’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는 ‘-는가’, ‘-는가’와 같은 ‘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일 경우,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가 사용되었다.

• 부테 世間에 ㉠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 네 뉘손터 글 ㉡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 어느 사르미 少微星이 있다 나르던고
(어떤 사람이 소미성이 있다고 말하던가?)

- | | |
|---------|--------|
| ① | ② |
| ① 나샤미신가 | ② 비혼다 |
| ③ 나샤미신고 | ③ 비호는고 |
| ④ 나샤미신다 | ④ 비혼다 |
| ⑤ 나샤미신다 | ⑤ 비호는고 |

4)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이러한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한 서술어의 종류에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에서 한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요구하는 ①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한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홀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겹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은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원인’, ‘조건’, ‘결과’,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문장 속에 안겨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 그리고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인용절’ 등이 있다. 안은문장에서는 안긴문장의 어떤 성분이 그것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게 되면 그 안긴문장의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11.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이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 ② 오빠는 아빠와 정말 많이 닮았다.
- ③ 장미꽃이 우리 집 뜰에도 피었다.
- ④ 아버지께서 헌 집을 정성껏 고치셨다.
- 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ㄴ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누나는 마음이 넓다.
- ㄴ. 그 배는 섬으로 갔다.
- ㄷ. 나는 형이 준 책을 읽었다.
- ㄹ. 우리는 그가 학생임을 알았다.
- ㅁ. 바람도 잠잠하고, 하늘도 푸르다.

- ① ㄱ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일하다.
- ②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 ③ ㄷ에서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중복되므로 생략되었다.
- ④ ㄷ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ㄴ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ㅁ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3. <보기>의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활동 과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다.

- ㉠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 중에서 골라보자.

불여우 — [불너우] [불러우]

- | | | |
|---|---|---|
| | ㉠ | ㉡ |
| ① | a | a |
| ② | a | b |
| ③ | b | a |
| ④ | b | c |
| ⑤ | c | d |

5)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익다 ㉠

- ① 열매나 씨가 여물다.
 ㉡ 배가 익다.
- ② 고기나 채소, 곡식 따위의 낱것이 뜨거운 열을 받아 그 성질과 맛이 달라지다.
 ㉢ 고기가 푹 익다.

익-히다 ㉣ 【...을】

- ① '익다①'의 사동사.
 ㉤ 잎사귀에 단풍이 든 콩들은 꼬투리를 더욱 단단하게 익히고 있었다.
- ② '익다②'의 사동사.
 ㉥ 고기를 익히다.

- ① '익다'와 '익히다'는 모두 다의어로군.
- ② '익다'와 달리 '익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군.
- ③ '익히다'는 '익다'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로군.
- ④ '익다①'의 유의어로는 '김치가 잘 숙성되었다.'의 '숙성되다'가 있겠군.
- ⑤ '익히다②'의 용례로 '감자를 푹 익혀 먹으면 맛이 좋다.'가 있겠군.

15. <보기>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

— <보 기> —

- ㉠ 효도훈과 공순호물 (효도함과 공순함을)
- ㉡ 兄(형)기 ㉢ 쁘디 일어시닐 ㉣ 聖孫(성손)을 ㉤ 내시니이다 (형의 뜻이 이루어지시매 (하늘이) 성손을 내셨습니다.)
- 世尊(세존)스 安否(안부) ㉥ 물줄고 니르샤티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군.
- ④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군.
- ⑤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군.

6)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11.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7)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음운 변동 현상인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둠별로 칠판에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알맞은 단어 카드를 붙여 볼까요?

- | | ㉠ | ㉡ | ㉢ | ㉣ |
|---|------|------|------|------|
| ① | 급행열차 | 깨끗하다 | 맛없다 | 영업용 |
| ② | 맛없다 | 급행열차 | 영업용 | 깨끗하다 |
| ③ | 맛없다 | 깨끗하다 | 영업용 | 급행열차 |
| ④ | 깨끗하다 | 영업용 | 맛없다 | 급행열차 |
| ⑤ | 깨끗하다 | 맛없다 | 급행열차 | 영업용 |

7) 2017년 11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회원 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2.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물리다¹
동사
 【…에/에게】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 ♣ 세 끼 꼬박 국수를 먹어서 이젠 국수에 물렸다.

물리다²
동사
 [1] 【…에/에게 …을】
 '1' '물리다²[1] '2' '의 피동사. ♣ 사나운 개에게 팔을 물리다.
 '2' '물리다²[1] '3' '의 피동사. ♣ 어젯밤 모기에게 코를 물렸다.
 [2] 【…에게】
 '물리다²[1] '4' '의 피동사. ♣ 그놈들에게 잘못 물렸다가는 큰일 치른다.

물리다³
동사
 [1] 【…을】
 '1' '무르다²[1] '1' '의 사동사. ♣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2] 【…을 …으로】
 '1' _____ ㉠ _____ ♣ 약속 날짜를 이틀 뒤로 물리다.

- ① 물리다¹, 물리다², 물리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 ② 물리다², 물리다³은 각각 다의어임을 알 수 있군.
- ③ 물리다¹의 용례로 '버스가 고장이 나 승객들이 차표를 도로 물리는 소동이 있었다.'를 추가할 수 있군.
- ④ 물리다²[1]은 물리다¹에 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군.
- ⑤ 물리다³의 ㉠에는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 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ㄱ.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ㄴ.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ㄷ.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ㄹ.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ㅁ.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난군.

- ① ㄱ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② ㄴ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⑤ ㅁ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제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이때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을,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으로 규정되는데, 선어말 어미 '-았-/-었-'과 관형사형 어미 '-(으)ㄴ-'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현재와 단절된 상황이나 먼 과거는 '-았었-/-었었-'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중 '-더-'는 발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쓰이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았-/-었-'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현재의 일이나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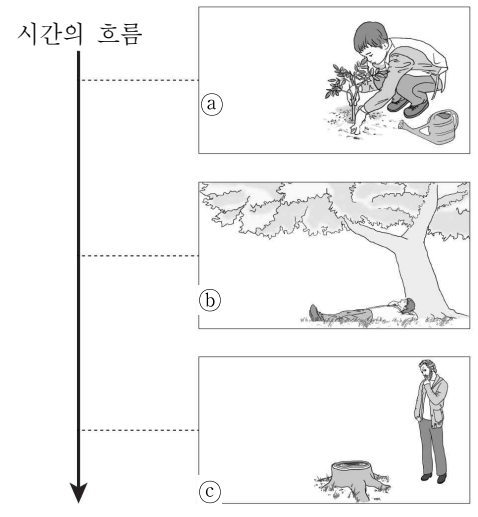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는-/-ㄴ-'을 통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을 통해서도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 표현은 보편적인 사실과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이다. 이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는 보편적으로 '-겠-'이 사용되며, '-(으)리-'가 사용되어 예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리-'가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동일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표현하거나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중세에는 '-더-'가 현대 국어와는 달리 모든 인칭에 두루 쓰였으며,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다-'로 나타났다.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는-/-ㄴ-'을 써서 표현하였으며, 이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래 시제는 '-리-'를 써서 표현하였다.

14. 다음은 현대 국어의 시제에 대한 탐구 활동지의 일부이다.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장면들로 문장을 만들어 현대 국어의 시제를 탐구해 보자. 이때 발화자는 '나'이며 ㉠, ㉡, ㉢ 장면의 인물도 발화자와 동일하다.



탐구 내용: _____ ㉠ _____

- ① ㉠에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하다면,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나는 묘목을 심는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② ㉠에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묘목이 자라면 나무 아래에서 잘 수 있겠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③ ㉠를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에서 발화한다면,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나는 묘목을 심었었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④ ㉢에서 ㉢를 회상하여 발화할 때 ‘나는 나무 아래에서 자더라.’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 것은 선어말 어미 ‘-더-’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⑤ ㉢에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할 때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낮잠은 다 잤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

— < 보 기 —

- (가) 주거미 닐오디 “내 흐마 명종(命終)호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주거미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다.”
- (나) 내 롱답하더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농담하였다.
- (다) 내 이제 또 물는다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내가 이제 또 묻는다.
- (라) 하늘이며 사름 사는 싸홀 다 뫼호아 세계(世界)라 흐느니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 (마) 내 이제 분명(分明)히 너드려 닐오리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 ① (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② (나):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③ (다): 선어말 어미 ‘-느-’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라):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마):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⁹⁾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 ‘이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 (1) 준영이가 책을 읽는다./읽느냐?/읽는구나.
- (2) 준영아, 책을 읽어라./읽자.

(1), (2)는 동사 ‘읽다’가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는 예이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읽-’은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인 ‘-는다, -느냐, -는구나, -어라, -자’는 어미이다. 이처럼 용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일을 ‘활용’이라 한다.

- (3) 꽃이 예쁘다./예쁘냐?/예쁘구나.
- (4) 꽃아, *예빠라./*예쁘자. (*표는 비문법적인 표현.)

(3), (4)는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하는 예이다. (1), (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과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활용에는 ‘-는다/느냐, -는구나, -어라, -자’가 쓰이지만 형용사 활용에는 ‘-다, -(으)냐, -구나’가 쓰인다. 다음으로 (2)와 (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어간과 달리 형용사 어간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꽃이 참 예빠라!’와 같이 ‘예빠라’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어미이다.

- (5) 이것이 책이다.(*책이는다.)/책이냐?(*책이느냐?)/책이로구나.(*책이는구나.)/*책이어라./*책이자.

(5)는 체언 ‘책’에 ‘이다’가 결합한 어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예이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다’도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 이때 ‘-는다/느냐, -는구나, 그리고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의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다’의 활용 양상은 대체로 (3), (4)에 나타난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②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 ③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④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 양상이 유사하다.
- ⑤ ‘이다’는 활용할 때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8) 2017년 11월 고2 모의고사 11~15번

9) 2017년 3월 고1 모의고사 11~15번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나는 주로 저녁에 씻는다.
 - ㉡ 오늘 날씨가 정말 춥구나.
 - ㉢ 규연아, 지금 밥 먹자.
 - ㉣ 창문을 활짝 열어라.
 - ㉤ 그는 어떤 사람이냐?

- ① ㉠의 '씻는다'는 어간이 '-는다'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 ② ㉡의 '춥구나'는 어간이 '-구나'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 ③ ㉢의 '먹자'는 어간이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 ④ ㉣의 '열어라'는 어간이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 ⑤ ㉤의 '사람이냐'는 체언에 '이다'가 결합한 말이 활용한 것이다.

13.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인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물[궁물]'과 '뭉[몽]'에서는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 | | | |
|---|----|----|
| | 국물 | 뭉 |
| ① | 교체 | 탈락 |
| ② | 교체 | 첨가 |
| ③ | 탈락 | 축약 |
| ④ | 첨가 | 교체 |
| ⑤ | 첨가 | 탈락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4. ㉠ ~ ㉥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 객체 높임이 있다.

선생님: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기특하다. 할머니를 ㉡ 뵙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저런, 할머니께서 ㉤ 편찮으셨나 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¹⁰⁾

< 보 기 >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기강이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무너지다'가 된다. '벗다'도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반의어가 여럿이다.

단어	예문	반의어
벗다	외투를 벗다.	입다
	(가)	쓰다
	배낭을 벗다.	(나)

- | | |
|-----------|-----|
| (가) | (나) |
| ① 누명을 벗다. | 메다 |
| ② 안경을 벗다. | 끼다 |
| ③ 장갑을 벗다. | 차다 |
| ④ 모자를 벗다. | 걸다 |
| ⑤ 허물을 벗다. | 들다 |

10) 2017년 3월 고1 모의고사 11~15번

11. <보기>의 (ㄱ)과 (ㄴ)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11)

<보 기>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어에 따라 아래 예와 같이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 물약 → [물낙] → [물략]
(ㄱ) (ㄴ)

- | | | |
|---|-----|-----|
| | (ㄱ) | (ㄴ) |
| ① | 첨가 | 교체 |
| ② | 첨가 | 탈락 |
| ③ | 탈락 | 교체 |
| ④ | 교체 | 첨가 |
| ⑤ | 교체 | 축약 |

12.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화자의 추측이나 ㉔ 의지, 가능성의 의미로 쓰인다.

- ①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겠다.
- ② 그렇게 쉬운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③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 ④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겠다.
- ⑤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13. <보기>는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 자료이다. 이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리다¹ 「동사」

㉠ 【…에】 눈에 눈물이 조금 피다.
 『갑순이의 두 눈에 어느덧 눈물이 어리고 있었다.』

㉡ 【…에】 어떤 현상, 기운, 추억 따위가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
 『밤을 새우고 난 그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어렸다.』

어리다² 「형용사」

㉢ 나이가 적다. 10대 전반을 넘지 않은 나이를 이른다.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
 『_____』

- ① '어리다¹'과 '어리다²'는 모두 다의어이다.
- ② '어리다¹'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 ③ '어리다¹'과 '어리다²'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 ④ '어리다¹'의 ㉡에 해당하는 또 다른 용례로, '입가에 미소가 어리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어리다²'의 ㉣에 들어갈 예로, '저의 어린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와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어 중에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사어도 있는데 이를 ㉠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는 비겁하게 굴었다.'에서 '비겁하게'는 부사어이지만 이 말이 빠지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므로 '비겁하게'는 필수 부사어이다.

- ① 철수가 매우 빨리 달렸다.
- ② 나는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③ 그녀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 ④ 정원에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 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5.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보 기>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진다. 단일어는 '바다', '놀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고, 파생어는 '군살'이나 '멋쟁이'처럼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로 '달빛'이나 '뛰놀다'와 같은 말이 이에 해당한다.

- ① '치솟다'는 접사가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고 있으므로 파생어이군.
- ② '밤하늘'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군.
- ③ '지우개'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닭고기'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군.
- ④ '나무꾼'과 '검불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끼리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군.
- ⑤ '개살구'와 '부채질'은 모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하는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구름'과 같이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한 단어가 다양한 발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는 합성어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는 파생어가 있다. 이때 합성어와 같이 어근끼리 연결된 경우에는 각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소리대로 적지 않고 끊어적기를 한다.

예 '국' + '물' → '국물' (○) / '궁물' (x)

단, '이[齒]'가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어근의 의미 유지와 관계없이 '니'로 적는다.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근에 접두사가 붙으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어근에 접미사가 붙을 때에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끊어적기를 한다.

예 '먹-[食] + '-이' → '먹이' (○) / '머기' (x)

이처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어법에 맞게 적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12)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 11~15번
13) 2017년 9월 고1 모의고사 11~15번

11.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빛 ② 옷 ③ 잎 ④ 바깥 ⑤ 하늘

12. 윗글을 통해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사건의 전모가 ㉠ 드러나다. (들다+나다)
- 집으로 ㉡ 돌아가다. (돌다+가다)
- 그의 얼굴에 ㉢ 웃음이 피어났다. (웃다+-음)
- ㉣ 노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놀다+-음)
- ㉤ 사랑니를 뽑더니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 (사랑+이[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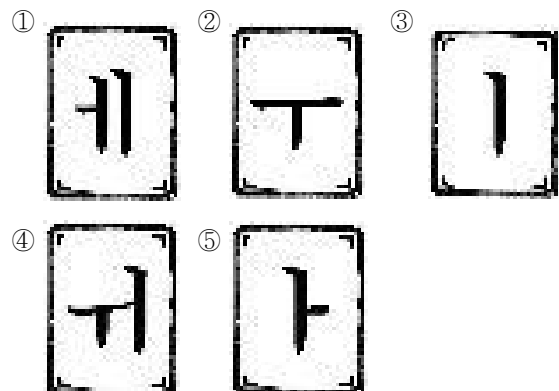
- ①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떨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② ㉡은 어근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어 끊어 적은 것이겠군.
- ③ ㉢은 어근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어 끊어 적은 것이겠군.
- ④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떨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⑤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떨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13.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 순	원 순	평 순	원 순
혀의 높이				
고 모 음	ㅣ	ㄱ	ㅡ	ㅈ
중 모 음	ㅑ	ㅊ	ㅓ	ㅉ
저 모 음	ㅕ		ㅗ	

<보 기>

- ㉠ 한글 모음 놀이의 승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할 것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14.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

‘엄마’와 ‘아빠’ 중에 어느 단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가 쉬울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 연령에 따라 습득되는 자음들이 다르다.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 그 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자 울림소리인 ‘ㄱ’이 2세 때 습득된다. 그 후 3세 때에는 파열음이자 안울림소리인 ‘ㅃ’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ㄱ’을 ‘ㅃ’보다 먼저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들은 부모의 호칭 중 음성학적으로 ‘아빠’보다 ‘엄마’를 보다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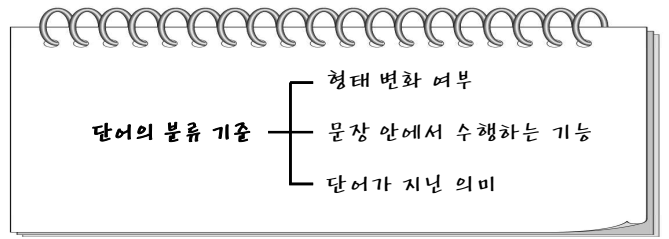
- ① ‘ㄱ’은 ‘ㅃ’보다 강하게 파열되며 나는 소리구나.
- ② ‘ㄱ’은 ‘ㅃ’과 달리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 ③ ‘ㄱ’은 ‘ㅃ’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 ④ ‘ㄱ’과 ‘ㅃ’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구나.
- ⑤ ‘ㄱ’과 ‘ㅃ’은 모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소리구나.

15. 다음 대화 상황에 드러난 어휘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어휘가 나타난다.
- ② 특정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어휘가 나타난다.
- ③ 지역적으로 격리되면서 달라진 어휘가 나타난다.
- ④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휘와 이를 대신하는 어휘가 나타난다.
- ⑤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휘가 나타난다.

11.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12. 다음은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고, <보기>는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ㅌ, ㅌ, ㅌ), ㄷ(ㄷ, ㅌ, 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6항**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보기>

- 학생 1:** ‘국밥’의 표준 발음은 [국밥]이야, [국뺨]이야?
학생 2: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르면, [국뺨]이 맞아. …… ㉠
학생 3: ‘아무리 뺨대도 소용이 없다.’에서 ‘뺨대도’는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기 때문에 [뺨대도]로 발음하겠네. …… ㉡
학생 2: ‘그가 집에 간다.’에서 ‘간다’는 [간다]로 발음하는데, ‘껴안다’는 왜 [껴안따]로 발음하지?
학생 3: ‘간다’의 기본형이 ‘가다’이므로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야. 그래서 표준 발음법 제24항을 적용할 수 없어.
학생 1: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껴안다’는 [껴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 …… ㉢
학생 2: 그러면 ‘그녀를 수양딸로 삼고 싶었다.’에서 ‘삼고’는 어간 받침 ‘ㄱ’ 뒤에 ‘ㄱ’이 결합되어 [삼꼬]로 발음해야겠네. …… ㉣
학생 3: ‘결과(結果)’는 [결과]로 발음하는데, ‘갈등(葛藤)’은 왜 [갈똥]으로 발음하지?
학생 1: ‘갈등(葛藤)’은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하지만, ‘결과(結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

올바른 문장이란 문장 성분이 잘 갖추어진 문장이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일컫는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 혹은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이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이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성분이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성분이다. 독립 성분에 해당하는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다.

이러한 문장 성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가령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주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과 서술어 ‘가지고 싶다’가 어울리지 않아 잘못된 문장이다. “지수는 시간이 되면 음악과 책을 듣는다.”는 목적어 ‘책을’과 서술어 ‘듣는다’가 어울리지 않아서, “다들 시험 치느라 여간 힘들다.”는 부사어 ‘여간’과 서술어 ‘힘들다’가 어울리지 않아서 잘못된 문장이다. 둘째,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여기에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경우 등이 있다. 예컨대 “나도 읽었다.”는 서술어 ‘읽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아이가 편지를 넣었다.”는 서술어 ‘넣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A]

* 체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단어들.
* 용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들.

13.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야호! 우리가 드디어 힘든 관문을 통과했어.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① 우리가, 통과했어	힘든, 관문을	야호, 드디어
② 우리가, 힘든, 관문을	통과했어	야호, 드디어
③ 우리가, 드디어, 통과했어	힘든, 관문을	야호
④ 우리가, 관문을, 통과했어	드디어, 힘든	야호
⑤ 관문을, 통과했어	우리가, 힘든	야호, 드디어

14. 다음은 [A]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올바른 문장 표현 익히기

● 잘못된 문장

㉠ 그는 친구에게 보냈다.

㉡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해야 한다.

㉢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

㉣ 할아버지께서 입학 선물을 주셨다.

㉤ 사람들은 즐겁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잘못된 이유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됐어. ①

㉡: 부사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②

㉢: 주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③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됐어.

㉤: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 고쳐 쓴 문장

㉠: 그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다.

㉡: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는 것이다.

㉣: 할아버지께서 어제 입학 선물을 주셨다. ④

㉤: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⑤

15.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료]

[현대어 해석]

가운뎃소리는 모두 열한 자(字)다. ‘·’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으니,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 「훈민정음 제자해(訓民正音 制字解)」 -

- ① ㉠은 ㉢과 달리 발음할 때 얕은 소리가 나겠군.
- ② ㉡는 ㉠과 달리 글자 모양이 평평하게 생겼군.
- ③ ㉢은 ㉠과 달리 발음할 때 혀가 오그라들지 않겠군.
- ④ ㉠, ㉡, ㉢은 모두 가운뎃소리 열한 자에 포함되는군.
- ⑤ ㉠, ㉡, ㉢은 대상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정답

2017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2017년 3월 시행)
11.① 12.② 13.② 14.② 15.⑤
2017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2017년 6월 시행)
11.⑤ 12.⑤ 13.④ 14.② 15.①
2017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2017년 9월 시행)
11.⑤ 12.① 13.③ 14.④ 15.⑤
2017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2017년 11월 시행)
11.③ 12.③ 13.④ 14.⑤ 15.⑤
2017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2017년 3월 시행)
11.④ 12.④ 13.① 14.⑤ 15.①
2017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2017년 6월 시행)
11.① 12.① 13.② 14.② 15.④
2017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2017년 9월 시행)
11.⑤ 12.⑤ 13.③ 14.① 15.②
2017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2017년 11월 시행)
11.③ 12.② 13.④ 14.④ 15.①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 질문, 오류제보, 자료요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레전드스터디닷컴